

\*반주음원QR



## 사랑의 주님이



암송구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 26:25)

## 트랙터 가정예배 일지

일시	참석자
기도제목 응답내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촌교회

## 트랙터 가정예배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창세기 26:12~25)



### 1 함께 찬양하기

내가 매일 기쁘게 (찬 191장)

-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반주음원QR



### 2 함께 본문 읽기

창세기 26:16~25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5)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 3 함께 생각하기

인도자가 읽어줍니다

연못가에 서 있는 갈대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 저리 나부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떡갈나무가 갈대를 보며 동정하였습니다. “이봐요 갈대, 자네의 가냘픈 몸집이 자네 자신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되겠는걸. 내 건강한 머리를 좀 보게. 햇빛을 멈추게도 하고 강한 폭풍까지도 힘차게 맞설 수 있지. 삭풍이 자네에게는 폭풍이지만 나에게는 미풍만도 못하네. 자네가 내 몸 밑에 태어났던들 나의 그늘을 은신처로 삼고 고생이 없을 텐데. 내 생각으로는 자연은 불공평한 것 같네.”라고 말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듣고 있던 갈대는 “나를 동정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다지 걱정은 마세요. 모든 바람은 나보다 당신에게 더 위험스럽소. 바람이 불면 나는 굽히기는 하지만 꺾이지는 않는다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떡갈나무는 갈대를 괘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지평선 저쪽에서 폭풍이 휘몰아쳐 왔습니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몸을 굽히지 않고 바람에 맞섰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가냘픈 갈대는 당장 쓰러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대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기울일 뿐 아무 괴로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떡갈나무는 강한 바람에 힘을 다하여 맞섰습니다. 바람은 더욱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결국 떡갈나무는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맞서다가 뿌리째 뽑히고 말았습니다. 매사에 교만하여 강하고 딱딱하게 맞서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길입니다. 결국에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 4 함께 관찰하기

성경 본문을 보며 빈칸을 채웁니다

- 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리로다 하였더라
- ②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의 하나님이니 □□□ 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 있어 네게 □을 주어 네 □□이 □□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 5 함께 나눠보기

질문에 따라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① 화가 나서 참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면 떠올려 보고, 그때 화를 내는 대신 할 수 있었던 선택에 대해 서로 나눠봅시다.
- ②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기에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첫째 백배나 얻었고, 둘째 창대하였고, 셋째 왕성하였고, 넷째 거부가 되었고, 다섯째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여섯째 종이 심히 많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승계되었고, 그 성취까지도 승계되어서 아름다운 복이 이삭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온전히 승계되는 믿음의 명품 가문을 꼭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견제하여 이삭이 파는 우물들마다 메꾸어버렸습니다. 가난한 땅에서 우물은 사람과 가축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훔으로 막고 메웠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도 이삭은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고, 그냥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네 번씩이나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삭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대립과 싸움이 아니라 양보와 온유의 방식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날마다 온유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6 함께 기도하기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한경쟁 속에서 다툼과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화가 날 때가 자주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온유와 겸손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